

음주사고 후 도주 빈번... “酒꾸라지” 잡을 방법 없나요

‘김호중 사건’으로 보니...광주·전남 ‘음주운전 사고 후 잠적’ 많아

경찰 “현행법상 도주 후 술 깬 뒤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어려워 답답”

음주 명백한데 처벌 난감...인명사고 후 뺑소니, 가중처벌 명심해야

최근 음주 사고 후 도주한 혐의를 자인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사고 후 잠적’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법조계에서는 운전자가 사고 뒤 현장을 이탈했을 경우 음주량을 명확히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 수사나 처벌이 곤란하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도 차량 단독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다음날 경찰에 나타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밤 10시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고가의 외제차량이 도로와 인도 사이에 올라탄 채 방치됐다.

차량의 내부에는 에어백이 작동했고 문까지 활짝 열려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차량 소유자 20대 남성 A씨는 현장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A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사고 전날 술을 마시고 당일 오전까지 주차된 차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았던 정황이 포착됐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벗어났다.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으로 입건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광주시청사 울타리를 들이받은 SUV 차량 운전자 B씨도 음주처벌을 빠져나갔다. 차량을 현장에 둔 채 종적을 감췄다가 17시간 뒤 나타났지만 B씨에 적용된 혐의는 A씨와 같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뿐이었다.

반면 지난해 5월에는 현지 경찰이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경찰은 차 안에서

경찰 근무복과 장구류 등을 발견해 운전자를 찾아 음주 측정을 거쳐 음주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정황상 음주가 명백한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해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잦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처벌하려면 반드시 음주측정 수치가 제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음주사고 후 도망가면 사고 미조치로 더 엄중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는 사고의 종류에 따라 갈린다.

현행법상 음주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일명 ‘뺑소니’로 엄한 처벌을 받는다.

인명사고 현장에서 음주 사실이 들롱 날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보험처리도 가능하다. 하지만 도주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면허취소는 물론 음주운전도주지상 혐의를 받아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낼 수 있다. 피해자가 숨진 후 도주, 도주 이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문제는 인명피해 사고 없이 단순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경우와 같은 단독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 음주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음주 정황이 명확해도 현장 적발 없이는 도주해도 음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희석된 후에 경찰서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최근 광주동부경찰 교통안전계 직원들이 광주시 동구 산수동과 북구 두암동을 잇는 도로에서 야간 음주단속을 진행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지역 한 교통계 경찰은 “음주사고 이후 알코올이 다 빠진 후에야 몸이 안좋아서 자수가 늦어졌다고 경찰서를 찾는 이들이 있다”며 “누가봐도 음주 정황이 있는데 음주 측정이 불가능해 처벌을 피해가는 모습을 보면 허탈하다”고 말했다.

법조계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민 법감정상 음주처벌을 해야 하지만, 의심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는 것은 증거법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분한 보강증거가 마련된다면 음주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정확한 음주 수치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다면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하

는 개량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음주 후 달아나면 처벌 받지 않을거라는 것이라는 기대가 잘못됐다는 것을 처벌로서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면서 “음주 상황이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23일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이 어려움이 있었다 “음주 교통사고 후의 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권의했다.

/김디인 기자 kdi@kwangju.co.kr

김호중 영장 심사 연기 요청 기각 중앙지법, 오늘 구속 여부 판가름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33)씨 측이 법원에 24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씨 변호인이 이날 오전 신청한 김씨의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장심사는 내일 낮 12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안돼” 전남경찰 대대적 단속 나서

전남경찰이 최근 전국적으로 음주사고 후 도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대대적으로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나선다.

23일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전 경찰서 합동 단속이 매달 1회 실시된다. 합동단속에는 교통경찰 이외에도 지역경찰·기동대가 배치되는 등 총 391명이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시간대에 유효가

주점, 일반 대중식당 밀집지역, 관광지·골프장 진출입로 등을 선정해 진행한다.

5월에는 23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전남 전 지역에서 동시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전남지역에서 최근 5년간 음주사망사고 시간대별 발생현황은 오후 8시~밤 10시(16.5%), 자정~새벽 2시(14.3%), 밤 10시~자정·오후 6~8시(12.1%) 순이었다. 요일별로는 월요일(22%), 토

요일(16.5%), 목·금·일요일(14.3%) 순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최근 2년간 음주 관련 전남지역 112신고 분석한 결과 밤 10~자정(18.4%), 자정~새벽 2시(15.5%), 오후 8시~밤 10시(14%) 112신고가 전체 음주 신고의 47.9%를 차지한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주·야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찰서별로 주 2~3회 이상 스팟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금호타이어 근로자 104명 통상임금 소송 승소

광주지법 “46억 추가 지급하라”

금호타이어 근로자 100여명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나경)는 23일 금

호타이어 전·현직 직원 등 10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통상임금) 소송 2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총 43억 6000여만원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원고 10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총 43억 2400

여만원이 인정됐고 다른 판결에서는 원고 한 명에게 3600만원이 인정됐다.

당초 2건의 재판의 원고는 총 2856명에 달했다. 하지만 노사가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잠정 합의안을 통과 시키면서 2700여명은 소를 취하했다. 나머지 103명의 원고는 이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계속 이어가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정병호 기자 jusbh@

실형 선고 사건브로커 “추징금 많다” 항소

고검장 출신 변호사비도 대납 주장

김·경의 수사 정보를 빼내 코인 사기 피해자에게 알려진 혐의로 1심에서 실형과 십억원대 추징금을 선고받은 ‘사건 브로커’가 항소했다.

23일 광주지법 304호에서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 심리로 사건브로커 성모(63)씨와 공범 A(64)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기일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사기 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 코인 사기범 B(45·별도사건으로 구속 재판 중)씨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총 18억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성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7억 1300만원,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150

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한 성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성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등도 주장했다.

성씨측은 “일부 금액은 B씨에게 돌려주고, B씨의 변호사비를 대납 했다”면서 “추징금에서 이 부분이 제외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며 1심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성씨는 1심에서 “B씨에게 받은 돈중 수익원을 B씨의 변호를 위해 썼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까지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씨는 이 사건 외에도 전남지역 경찰 인사 청탁 비위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광주지역 경찰 인사청탁 혐의로 기소돼 재판 을 받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지은이 | 조선의
펴낸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청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청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청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